

《十抄詩》 所載 中唐 七言律詩 研究

金俊淵·梁恩鮮*

<목 차>

1. 서론
2. 《십초시》의 가치와 의미
3. 《십초시》 소재 중당 칠언율시의 내용
4. 《십초시》 소재 중당 칠언율시의 특징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구한 문화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자가 전래된 이후로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漢詩도 그 중의 하나인데, 612년에 창작된 乙支文德의 오언고시 <與隋將于仲文詩>는 우리나라 한시 창작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 하겠다. 이후 한시의 수용을 주도한 것은 신라였다. 9세기 들어 羅唐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는 新羅坊이라 하여 신라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820년 무렵부터 渡唐 유학이 본격화되어 金雲卿같은 이가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다.¹⁾ 이들 신라 유학생들이 唐詩를 배우고 수용하는 매개체가 되고, 白居易같은 이의 평이한 시가 신라에 전해져 크게 유행하면서 이러한 문화교류는 속도를 높여갔다.

www.kci.go.kr

* 高麗大 中文科 副教授·博士課程.

1) 호승희, 《신라한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94쪽.

문화의 교류와 수용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현전하는 문헌들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중국 시 관련 주요 문헌으로는 昭明太子의 《文選》, 周弼의 《三體詩》, 方回的 《瀛奎律髓》, 元好問의 《唐詩鼓吹》, 楊士弘의 《唐音》 등이 있다. 전통 시대 한국의 문인들은 이런 문헌을 섭렵하면서 중국의 시를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활동도 해나갔다. 이렇게 '수입'한 문헌 외에 간혹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것도 있는데,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十抄詩》가 그 좋은 예다. 《십초시》는 고려 초기에 중국과 신라의 시를 한데 모아 그 당시 문화교류의 단면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중만당 시인과 신라의 시인을 동렬에 둔 구성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꾸준히 《십초시》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²⁾ 그런데 이런 관심은 주로 《십초시》의 書誌의 인 특징, 이를테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失傳된 문헌을 저본으로 삼아 《全唐詩》에 보이지 않는 다량의 佚詩를 간직하고 있다는 등에 집중되었다.³⁾ 상대적으로 《십초시》가 일종의 시선집(anthology)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생각된다. 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들을 골라 실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본고는 이 분야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먼저 《십초시》에 선록된 중당 칠언율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嚴傑의 <《十抄詩》中唐代佚詩錄文之辨誤> (《古典文獻研究》第7輯, 2004), 金程宇의 <《十抄詩》叢筈> (《域外漢籍研究集刊》第1輯, 2005), 그리고 일본학자 岡田千穂의 <《十抄詩》及其注本の文獻價値> (《域外漢籍研究集刊》第1輯, 2005) 등의 논문에서 《十抄詩》의 문헌학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張鵬은 <《夾注名賢十抄詩》補正> (《域外漢籍研究集刊》第4輯, 2008)에서 《夾注名賢十抄詩》의 인용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3) 牛林傑과 金程宇가 일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 수량에 대해 金程宇는 102수 (《韓國本《十抄詩》中的唐人佚詩輯考》(《沈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2年 第5期), 牛林傑은 143수 (《韓國文獻中的《全唐詩》逸詩考》(《文史哲》, 山東大學出版社, 1998年 第5期)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또 扈承喜도 그 일시가 모두 143수라고 하였다. (<《十抄詩》一考-《全唐詩》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書誌學報》第15호, 1995.) 이밖에 姜哲中の <十鈔詩의 中國詩 選詩 樣相 一考> (《韓國漢詩研究》 제11집, 2003)도 일시 문제를 논했다.

2. 《십초시》의 가치와 의미

《十抄詩》는 고려 초기에 나온 칠언율시 선집이다. 中唐에서 五代에 이르는 26명의 중국 시인과 4명의 신라 시인의 칠언율시를 각각 10수씩 선별하여 300수⁴⁾를 수록하고 있다. 이 선집은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진다. 하나는 주석이 없는 《십초시》⁵⁾이고, 다른 하나는 주석이 달린 《夾注名賢十抄詩》⁶⁾이다. 전자는 편찬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후자는 神印宗의 僧侶 子山이 주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현전하는 《협주명현십초시》는 文宗 2년(1452) 密陽의 府伯 李伯常과 監司相國 全城李氏가 주관하고 權擘(1416-1465)이 교정하여 密陽府에서 重刊된 책이다. 책의 권두에는 권람의 重刊跋이 남아 있어 간행 목적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칠언율시만을 수록한 전문 시선집을 간행한 것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시선집들이 뚜렷한 전문화 경향을 띠고 있었던 사회적 저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십초시》의 진정한 가치는 이것이 중국 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선집한 최초의 시선집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십초시》가 출간된 고려 초기까지 중국에서도 대략 열 종에 달하는 唐詩 選集이 나왔다. 이들 선집들은 저마다 내세운 선시 기준이 있었다. 이를테면 元結의 《篋中集》은 민생의 절고를 반영한 시를 많이 선록했고, 殷璠의 《河嶽英靈集》은 ‘聲律’과 ‘風骨’

4) ‘詩三百’의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5) 이 책은 고려대 晩松文庫, 간송미술관 澗松文庫, 서울대 규장각, 莽蒼齋齋, 북경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목판본 2권1책이다.

6) 이 책은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誠庵文庫, 일본 陽明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3권 3책이다. 근자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 보관되어 있던 경주 양동 孫氏 가문의 松簞手澤本이 영인되어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송첩수택본은 1452년 밀양부에서 간행한 것으로 1337년 안동부에서 간행된 판본을 근거로 하였다.

7)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十抄詩》는 북송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10세기 전후에 편찬되었으며, 《夾注名賢十抄詩》는 1300년대 전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黃渭周, <朝鮮 前期의 漢詩選集>, 《정신문화연구》 제2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39쪽.

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芮挺章의 《國秀集》은 '雅正'의 가치를 내걸었다. 그런데 《십초시》의 경우 아쉽게도 편자가 밝힌 선시 기준은 전해지지 않은 채 선시 결과만 남아 있다. 따라서 《십초시》 연구에서 선시 배경과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제 《십초시》에 실린 시인을 中唐, 晚唐, 新羅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⁹⁾

中唐	晚唐					新羅
劉禹錫	許 渾	張 祜	溫庭筠	杜 牧		崔致遠
白居易	雍 陶	方 干	李群玉	趙 蝦		朴仁範
張 籍	李山甫	羅 隱	杜荀鶴	章孝標		崔承祐
賈 島	李 遠	馬 戴	韋 蟾	皮日休		崔匡裕
	曹 唐	李 雄	吳仁璧	韓 琮		
		羅 鄴	秦韜玉			
4인	22인					4인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십초시》는 만당의 시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중당과 신라의 시인이 일부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를 여러 시기로 구분하면서 더러 중당을 만당에 합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라의 시인들이 모두 만당에 활동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십초시》는 '晚唐 七律 選集'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칠언율시 발전사에서 중당과 만당은 엄연히 그 특징을 달리했다. 따라서 《십초시》의 편자도 이 점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四唐說의 관례상 중당으로 편입되는 시인들만 따로 묶어 고찰하고자 한다.

9) 이 가운데 신라 시인에 대해서는 徐盛의 선행 연구에서 晚唐詩와의 異同을 논하였다. (<晚唐 七言律詩와 新羅 漢詩>, 《中國語文論叢》 제37집, 2008.) 이 논문은 《십초시》에 초점에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신라 시인들의 칠언율시가 대개 《십초시》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십초시》 소재 신라 칠언율시'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십초시》 소재 中唐 칠언율시의 내용

《십초시》는 초성당의 칠언율시를 선록하지 않았다. 특히 당대 칠언율시의 大宗이라 할 杜甫의 칠언율시까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십초시》에 선록된 중당 칠언율시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성당 칠언율시의 발전과정을 잠시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초당 시기에는 宮廷을 중심으로 學士들에 의해 칠언율시가 창작되면서 대체적인 격률이 완성되었으나, 제재는 奉和應制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⁰⁾ 성당 시기의 칠언율시는 오히려 초당시기보다 칠언율시의 격률이 퇴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격률의 체계화에는 진전이 없었으나, 응제만으로 이루어졌던 초당의 칠언율시에 비해 제재는 문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크게 확대되었다.¹¹⁾

《십초시》는 또 劉長卿이나 大曆十才子가 활약했던 중당 전기의 칠언율시도 신지 않았다. 이들에 의해 창작된 칠언율시가 250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이유가 궁급해지는 문제의 하나다. 중당 후기에는 元稹과 白居易를 위시한 이른바 通俗派 작가들과 劉禹錫 등이 칠언율시의 창작에 적극 나서면서 공전의 성황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창작한 칠언율시의 제재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보다는 시인들끼리 안부를 주고받는 사교 생활에 크게 치우친 흠이 있었다.¹²⁾ 《십초시》에서는 중당의 작가로 유우석, 백거이, 張籍, 賈島의 시를 선정하고 그들의 칠언율시 열 수씩을 선록했다.¹³⁾ 그러면 이들 작

10) 초당 시기 칠언율시의 대표작가로 李嶠, 蘇味道, 杜審言, 崔融, 沈佺期, 宋之問, 張說 등을 들 수 있다.

11) 성당시기 칠언율시의 대표작가로는 王維, 李頎, 高適, 岑參, 杜甫 등이 있다.

12)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 역락, 2004, 247쪽.

13) 유우석과 백거이는 30家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장적은 네 번째, 가도는 스물여덟 번째에 실려 있다. 이 외에 중당시기에 해당되는 인물로 張祐가 있으나, 수록된 시 10수 중 5수가 許渾의 시임이 밝혀져 본고의 논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품을 시인별로 간략히 살펴보자.

3.1 劉禹錫

유우석(772-842)은 34세 때 세칭 二王八司馬 사건의 일인으로 지방으로 좌천되어 20여 년을 보낸 불우한 인생 역정을 호방한 필치로 노래해 ‘詩豪’라 일컬어지는 시인이다. 현실 정치의 암흑상을 꼬집은 풍자시와 역사 또는 인생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회고시를 많이 남겼다.¹⁴⁾ 근체시와 고체시에 고루 능했으며, 칠언율시 방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詩作 817수 가운데 184수에 이르는 그의 칠언율시는 대체로 ‘沈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⁵⁾

그런데 유우석의 칠언율시는 제재 면에서 지나치게 ‘社交’ 계통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84수 가운데 寄贈, 唱和, 送別 등 사교 제재의 작품이 무려 161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열에 아홉은 특정 제재를 다루기보다는 다른 시인들과 주고받은 일상적 내용이라는 뜻이다. 《십초시》에 선록된 열 수의 칠언율시¹⁶⁾도 이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題集賢閣>을 제외한 9수의 시가 모두 사교 제재의 것인 까닭이다. 여기서 두 수를 골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찰할 작품은 <白舍人寄新詩有歎早白無兒因以贈之>¹⁷⁾라는 시다.

莫嗟華髮與無兒, 백발과 무자식을 탄식하지 말게
卻是人間久遠期. 오히려 인생이 장구하다는 기억일지니

14) 陳廣宏·鄭利華·歸青, 《中國詩學》 제2권, 東方出版中心, 1999, 135쪽.

15) 管世銘, 《讀雪山房唐詩鈔》: 劉賓客七律沈雄.

16) <春日書懷寄東洛白二十二楊八二庶子>, <白舍人寄新詩有歎早白無兒因以贈之>, <上淮南令狐楚相公>, <酬白樂天>, <王少尹宅宴張常侍二十六兄白舍人大監兼呈盧郎中李員外二副使>, <和令狐相公題竹>, <闕下待傳點呈諸同舍>, <題集賢閣>, <和令狐相公初歸京國賦詩言懷>, <送令狐相公赴東都留守> 등이다. 이 중에서 <上淮南令狐楚相公>은 백거이의 시가 잘못 끼여든 것이다.(謝思煒, 《白居易詩集校注》, 中華書局, 2006, 1874쪽)
17) 《全唐詩》 권360에는 시제가 <蘇州白舍人寄新詩有歎早白無兒之句因以贈之>로 되어 있다.

雪裏高山頭白早, 눈 속의 높은 산 정상이 하얀 것 이르고
 海中仙果子生遲, 바다 속 신선의 과일 씨 생기는 것 더디잖은가
 于公必有高門慶, 우공에게 틀림없이 높은 가문의 경사가 있을 것인데
 謝守何煩曉鏡悲, 사씨 태수는 무엇 때문에 새벽 거울에 슬퍼하는가?
 幸免如新分非淺, 다행히 새로운 것 같음은 면해 교분이 얕지 않으니
 祝君長詠夢熊詩, 그대가 길이 꿈 꿈 시를 읊기를 축원하네

유우석은 만년에 백거이와 자주 시를 창화하여 ‘劉白’이라 병칭되었다.¹⁸⁾ 寶曆 원년(825)에 창작된 이 시도 먼저 백거이가 보낸 시에 답한 것이다. 백거이의 原唱은 <自詠>¹⁹⁾이라는 칠언율시로, 제7구에 “唯是無兒頭早白”이라 한 구절이 보인다. 이 시는 나이 오십이 넘어 백발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백거이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함련에서는 ‘높은 산’과 ‘신선의 과일’을 예로 들어 고매한 인품을 소유할수록 일찍 머리가 희어지고 자식도 늦게 보는 법이라 했다. 경련에서는 于公과 謝朓의 전고를 써서 조만간 가문을 빛낼 후손이 나올 터이니 늙어간다고 슬퍼하지만 말라고 했다. 미련도 경련과 마찬가지로 전고를 써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白頭如新’²⁰⁾이라는 말을 뒤집어 다행히 두 사람 사이는 교분이 두텁다고 하면서 아들을 낳는 길몽²¹⁾을 꾸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창의 ‘無兒’와 ‘早白’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여러 관련 고사 등을 두루 동원한 위로 편지에 다름 아니다.

다음에 살펴볼 <酬白樂天>도 위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巴山楚水淒涼地, 파산이 있고 초의 강물 흐르는 처량한 땅에
 二十三年棄置身, 23년 동안 몸을 내던졌습니다
 懷舊空吟聞笛賦, 옛일을 생각하며 팬시리 피리소리 듣고 지은 부를 읊조리니
 到鄉翻似爛柯人, 고향 가면 도리어 썩은 도끼 자루 가진 사람 되겠지요
 沈舟側畔千帆過, 물에 잠긴 배 옆으로 수많은 돛단배 지나가고
 病樹前頭萬木春, 병든 나무 앞에 수많은 나무가 봄을 맞습니다

18) 許總, 《唐詩史》(下冊), 江西教育出版社, 1995, 305쪽.

19) 謝思焯, 《白居易詩集校注》, 中華書局, 2006, 1875쪽.

20) 백발이 되도록 오랜 시간이 흘러도 교분이 깊어지지 않아 처음 만난 듯하다는 말이다.

21) 《詩·小雅·斯干》: 吉夢有何? 維熊維羆.

今日聽君歌一曲, 오늘 그대가 부르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며
暫憑杯酒長精神. 잠시 한 잔 술에 의지하여 정신을 북돋웁니다

《全唐詩》 권360에 <酬樂天揚州初逢席上見贈>이라는 시제로 실려 있는 이 시는 보력 2년(826)에 지어졌다. 위 시와 마찬가지로 백거이가 유우석에게 준 시에²²⁾ 화답한 것인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백거이가 유우석을 위로하였다. 백거이는 원창에서 貞元 21년(805) 朗州司馬로 좌천된 이후 23년간 지방을 전전하던 유우석을 안타까워하자, 유우석이 감사의 답시를 보낸 것이다. 다만 이 시는 위의 <白舍人寄新詩有歎早白無兒因以贈之>와는 달리 경련의 참신한 비유가 인상적이다. 좌천되어 수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자신을 '물에 잠긴 배'와 '병든 나무'에 비유하고, 다시 이것을 수많은 '뚝단배'와 '나무'에 대조시킨 수법이 정교하다.

이상의 두 수 외에 《십초시》에 선록된 유우석의 다른 시들도 이와 엇비슷한 제재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로 백거이 또는 舍狐楚와 주고받은 시가 주류를 이룬다. 유우석의 칠언율시에는 <西塞山懷古>나 <始聞秋風>처럼 雄渾하거나 剛健한 풍격의 수작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십초시》의 선시 기준이 다소 협소하지 않은가 싶다.

3.2 白居易

백거이(772-846)는 현전하는 시만 2,830수에 이르는 당대 제일의 多産 시인이다. 元稹과 함께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 뒤로 '新樂府'를 매개로 정치와 풍속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元和 9년(815) 江州司馬로 좌천된 이후에는 큰 충격을 받고 '獨善其身'을 표방하며 閑寂詩와 感傷詩 창작으로 돌아섰다. 백거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석이 필요 없을 만큼 평이하고 통속적이라는 데 있다.

22) 白居易, <酬贈劉二十八使君>(《全唐詩》 卷448).

이런 풍격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각계각층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멀리 新羅와 日本에서도 그의 시를 애호하는 이가 많았다.²³⁾

백거이는 당대 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칠언율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다. 江州司馬로 좌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작된 칠언율시가 605수에 달하는데,²⁴⁾ 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통속적 풍격과 맥을 같이 해 일상적인 제재를 평이한 시어로 읊긴 것들이 대다수이다. 백거이의 칠언율시도 社交 제재가 많지만, 유우석과는 달리 절반 이상은 또 영사시, 영회시, 영물시, 산수시 등 다양한 제재를 다루었다.²⁵⁾ 《십초시》에 수록된 열 수의 시²⁶⁾도 이런 창작 경향을 반영하여 응수성의 시는 두 수에 불과하다. 특히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錢塘春日卽事>를 보자.

望海樓明映曙霞, 망해루에 밝게 저녁 노을 비추이고
 護江堤白踏晴沙, 호강제에서 하얗게 비 그친 모래를 밟는다
 濤聲夜入伍員廟, 파도 소리 밤에 오자서 사당으로 들어오고
 柳色春藏蘇小家, 버들빛 봄에 소소소 집을 감춘다
 紅袖織綾誇柿蒂, 붉은 소매로 비단을 짜며 감꼭지 무늬를 자랑하고
 靑旗沽酒趁梨花, 푸른 깃발 걸고 술을 팔며 배꽃 필 때에 맞춘다
 誰開湖寺西南路, 누가 호수의 절 서남쪽 길을 열었나?
 草綠裙襖一道斜, 풀이 푸르러지자 치마끈처럼 한 줄기 길이 비스듬하다

이 시는 《全唐詩》 권443에 <杭州春望>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백거이가 杭州刺史로 임직하던 長慶 3年(823)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명승과 특산물 두루 소개하며 아름다운 항주의 경물을 칭송했다. 수련의 ‘망해루’와 ‘호강제’, 함련의 ‘오자서 사당’과 ‘소소소 집’, 미련의 ‘호수의 절(孤山寺)’과 ‘서남쪽 길(白堤)’는 모두 항주의 유명한 명승지이다. 경련에서는 항주의 두 가지

23) 陳才智, 《白居易》, 五洲傳播出版社, 2005, 13쪽.

24) 金俊淵, 앞의 책, 263쪽.

25) 王婷婷, 《白居易近體詩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19쪽.

26) <西省對花憶忠州東坡雜樹因寄題東樓>, <錢塘春日卽事>, <鸚鵡>, <庾順之以紫霞綺遠贈以詩答之>, <漁父>, <水精念珠>, <餘杭形勝>, <江樓晚眺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 <眼昏>, <江樓夕望招客>.

특산물인 ‘감꼭지 무늬 비단’과 ‘梨花春酒’를 소개했다. 마지막 구에서 봄날에 풀이 무성해진 백제를 치마끈에 빗대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없지도 않으나, 전체적인 詩想은 눈에 드는 경물을 산뜻하게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어서 또 다른 한 수인 <餘杭形勝>을 보자.

餘杭形勝四方無, 여항의 경치와 명승은 사방에 없나니
 州傍青山縣枕湖, 주는 푸른 산의 옆, 현은 호수의 곁
 繞郭荷花三十里, 외성을 두른 연꽃이 삼십 리요
 拂城松樹幾千株, 내성을 스치는 소나무가 천 그루라
 題詩舊壁傳名謝, 시를 짓던 옛 벽은 이름이 夢謝亭이라 전해지고
 教舞新樓道姓蘇, 춤을 가르치던 새 누각은 성이 蘇라 하더라
 獨有使君年最老, 유독 자사만이 나이가 가장 많아
 風光不染白髭鬚, 풍광도 흰 수염을 물들이지 못하는구나

이 시 역시 자사로 항주에 머물 때 지은 것이다. 당시 항주는 餘杭, 錢塘 등 네 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삼면의 산이 西湖를 두르는 형세여서 명승의 요건을 잘 갖춘 곳이었다. 성 밖으로는 연꽃이 만발하고, 안으로는 소나무가 빼곡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묘사를 대신했다. 南朝 이후로 名士들이 모여든 곳이었기에 杜明師가 謝靈運을 꿈꾸었다는 정자와 蘇小小가 춤을 가르쳤다는 누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불만한 경물과 명승도 이미 하얗게 눈이 내린 시인의 수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것으로 시를 매듭지었다.

이상의 두 시는 백거이 산수 칠율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기 산수 제재의 칠율로는 위 시보다 <錢塘湖春行>이나 <西湖晚歸回望孤山寺贈諸客> 등이 수작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십초시》의 선시 기준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 또 《십초시》에 선록된 열 수 가운데 <漁父>와 <水晶念珠>는 《全唐詩》에 수록되지 않은 佚詩라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水晶念珠>의 경우 敦煌에서 발견된 <禪月大師懸水晶念珠詩>와 대단히 흡사하다는 지적²⁷⁾이

있어 백거이의 시가 틀림없는지 보다 정밀한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張籍

장적(767?-830?)은 다음에 살펴볼 가도와 함께 만당시의 양대 開祖라는 평이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시인이었다.²⁸⁾ 그의 시는 백성들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樂府詩에서 가장 큰 성취를 거두었으며, 평이하고 통속적인 시어를 즐겨 썼다. 그런데 사실 400수가 넘는 장적의 시 가운데 약부시는 90수에 불과하며, 오언율시를 중심으로 한 근체시가 350수 가량으로 훨씬 더 많다. 이들 근체시는 장적 자신이 직접 겪거나 느낀 소재들을 조탁의 흔적이 없이 平淡한 필치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다.²⁹⁾

현전하는 장적의 칠언율시는 모두 81수이다. 淸 管世銘은 元和 연간의 칠언율시 작가로는 유종원과 유우석 다음으로 장적을 꼽는다면서 그의 시가 함축적이고 아정한 맛이 있다고 했다.³⁰⁾ 그런데 장적 칠율의 주요 제재는 유우석과 비슷하게 社交詩가 주류를 이루어, 여기에서 벗어나는 시로는 <書懷>, <昆侖兒>, <寒食看花> 등의 몇 수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십초시》에 선록된 열 수³¹⁾도 불가피하게 사교시에 한정되었다. 먼저 <寄和州劉使君>을 감상해보자.

離朝已久猶爲郡, 조정을 떠난 지 이미 오래건만 여전히 군수로서

27) 金程宇, <十抄詩叢札>, 《域外漢籍研究集刊》 제1집, 2005, 109쪽.

28) 楊慎, 《升庵詩話》卷11: 晚唐之詩分爲二派. 一派學張籍, 朱慶餘, 陳標, 任蕃, 章孝標, 司空圖, 項斯其人也; 一派學賈島, 則李洞, 姚合, 方幹, 喻鳧, 周賀, 九僧其人也. 其間雖多, 不越此二派.

29) 何雲, <論張籍的近體詩>,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9쪽.

30) 管世銘, 《讀雪山房唐詩序例·唐詩凡例》: (柳劉)元和二豪也. 其次則張水部, 風流縉藉, 不失雅音.

31) <贈孔尚書>, <寄和州劉使君>, <題王秘書幽居>, <送桂州李中丞>, <寒食內宴詩二首>, <送江西院劇侍御>, <寄蘇州白使君>, <和度支胡尚書言懷寄楊少尹>, <送李司空赴襄陽>.

閑向春風倒酒瓶. 한가로이 봄바람 향해 술병 기울이겠지
 送客時過沙口堰. 손님 배웅하느라 이따금 모랫벌 입구 방죽을 지나고
 看花多上水心亭. 꽃 구경하느라 자주 물 가운데 정자에 오르리라
 曉後江氣連城白. 새벽이 온 강 기운은 성까지 하얗고
 晴後山光滿郭青. 갠 뒤의 산빛이 외성 가득 푸르겠지
 到此詩情應更遠. 그곳에 가 詩情이 응당 더욱 심원해졌을 터지만
 醉中高詠有誰聽. 취하여 소리 높여 읊을들 누가 있어 들어주랴

이 시는 보력 원년(825) 主客郎中 장적이 和州刺史 유우석에게 보낸 것이다.³²⁾ 화주는 지금의 안휘성 和縣으로, 유우석은 長慶 4년(824)에 이곳에 부임해 2년 동안 머물렀다. 장안에 있던 장적은 다소 궁벽한 시골에 내려가 있는 유우석의 안부를 묻고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인다. 함련의 沙口堰과 水心亭은 화주의 승경이고, 경련은 다음 구에 보이는 ‘詩情’을 북돋을 만한 그곳의 평온한 자연환경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미련에 가서 반전된다. 화주가 아름다다해도 결국 王粲의 말처럼 ‘나의 땅(吾土)’이 아니기도 하거니와³³⁾ 詩情을 펼쳐봐도 그것을 들어줄知音이 없는 까닭이다. 이 시는 이처럼 담담한 듯한 묘사를 통해 깊은 정을 드러내 장적 칠언율시 중에서는 佳作로 손꼽힌다.

계속해서 <寒食內宴詩二首> 가운데 첫째 수를 보자.

朝光瑞氣滿宮樓. 아침 빛과 상서로운 기운은 궁전 누각에 가득하고
 彩仗魚龍四面稠. 화려한 의장 속 물고기와 용이 사방에 빼곡하다.
 廊下御廚分冷食. 행랑 아래 수라간에선 찬 음식을 나누고
 殿前香騎逐飛毬. 전각 앞 미인의 말은 나는 공을 쫓는다.
 千官盡醉猶教坐. 백관들 다 취하였는데도 여전히 앉아 있고
 百戲皆呈亦未休. 백희를 모두 연출하고도 또한 쉬지 않네.
 共起拜恩侵夜出. 함께 일어나 은혜에 감사하며 밤에 나서니
 金吾不敢問行由. 金吾도 통행하는 이유를 감히 묻지 못하네.

이 시는 한식에 궁중에서 베풀어진 연회를 묘사한 것이다. 당대에 한식은

32) 陳增傑, <唐人律詩箋注集評>, 浙江古籍出版社, 2003, 643쪽.

33) 王粲, <登樓賦>: 雖信美而非吾土兮, 曾何足以少留.

큰 명절 중의 하나여서 이와 같은 연회가 벌어졌고, 관리들은 7일간의 휴가를 얻었다. 이날에는 불에 타 죽은 介子推를 기리는 뜻으로 불에 익히지 않은 '冷飩'을 먹는 풍습이 있다. 또 청명절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닭싸움, 말달리기, 그네뛰기, 蹴鞠, 打毬 등의 야외활동을 곁들이기도 했다.³⁴⁾ 임금이 하사한 술에 흠뻑 취한 관리들 앞에서 藝人들은 끊임없이 백희를 공연하는 연회는 밤까지 이어진다. 이 날은 통행금지도 해제되어 사람들은 심야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다. 이 시는 이렇게 궁중의 연회를 중심으로 한식의 이모저모를 그려낸 한 폭의 풍속화에 가깝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수 외에 나머지 시는 지극히 평범한 사교 제재의 것들이다. 이를테면 孔尙書는 “사들인 계집종들을 남에게 시집가게 하고”³⁵⁾, 王秘書는 “여러 골동품을 수집해 서가에 둔다”³⁶⁾는 일상적인 내용을 소재로 삼았다. 《십초시》에 선록된 열 수 가운데 <送桂州李中丞>, <送江西院劇侍御>, <和度支胡尙書言懷寄楊少尹> 등의 세 수가 《全唐詩》에 수록되지 않은 일시인데, 다른 일곱 수의 시들과 대동소이한 제재와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만한 정도는 아니다.

3.4 賈島

가도(779-843)는 '瘦'라는 한 글자로 평가된 것처럼³⁷⁾ 시에서 풍부하고 여유로운 정서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필치를 선호했다. 이는 韓孟詩派가 추구한 奇險한 시풍과도 맥이 닿는다 하여 그 일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개성은 의외로 이후 시인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聞一多같은 이는 만당

34) 李文娟, <寒食清明節與唐朝文化>, 《安徽文學》, 2009년 제6기, 233쪽.

35) <贈孔尙書>: 買來侍女教人嫁.

36) <贈王秘書>: 多收古器在書樓.

37) 蘇軾, 《東坡集》 卷35, <祭柳子玉文>: 獨以詩鳴, 天錫雄味, 元輕白俗, 郊寒島瘦, 噉然一吟, 衆作卑陋.

오대를 가도의 시대라 불러도 좋겠다고까지 하였다.³⁸⁾ 韓愈와 얽힌 '推敲'의 고사가 대변하듯 그는 조탁을 중시하는 '苦吟'을 추구하고, 이런 노력에서 나온 詩作이 호평을 받은 결과라 하겠다. 그의 전체 시 393수 가운데 오율이 250수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절구와 오언고시도 잘 지었다는 평이 있다.

韓愈, 孟郊, 李賀 등 다른 한맹시파의 시인들이 칠언율시를 거의 외면했던 것에 비하면 가도는 칠언율시를 44수나 남겨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그의 오언율시와 격차를 보였는데, 이를테면 方回는 “가도의 오언율시는 고상하고 예스러우니 평생 지극히 힘을 쏟은 것이나 칠언율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³⁹⁾고 잘라 말했다. 44수의 칠언율시 중에는 <巴興作>, <上谷旅夜>, <詠懷>와 같은 영회시나 <早蟬>, <崔卿池上雙白鷺>, <病鶻吟>과 같은 영물시도 없지 않으나,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 제재의 시들이다. 《십초시》에 선록된 열 수⁴⁰⁾도 대체로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먼저 <寄韓潮州>를 보자.

此心曾與木蘭舟, 이 마음 일찍이 목란배와 함께 하여
重到天南潮水頭. 다시 하늘 남쪽 潮水가에 이르렀답니다.
隔嶺篇章來華嶽, 고개 너머의 글이 華山으로 오고
出關書信過瀧流. 관문을 넘은 서신이 瀧水를 지납니다.
峰縣驛路殘雲斷, 봉우리에 매달린 역참길 남은 구름에 끊어지고
海浸城根老樹秋. 바닷물이 성밑에 들면 늙은 나무는 가을이겠지요.
半夜瘴煙風卷盡, 늦은 밤 瘴氣와 안개를 바람이 모두 걷어가면
月明初上近西樓. 밝은 달 막 떠올라 서쪽 누각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시는 元和 14년(819)에 潮州刺史로 폄적된 韓愈에게 부친 것이다.⁴¹⁾ 당시 한유는 <論佛骨表>를 올려 궁중으로 부처의 사리를 모시려는 憲宗의 결정에

38) 聞一多, 《聞一多全集·唐詩編上》, <賈島>: 我們不妨稱晚唐五代爲賈島的時代.

39) 方回, 《瀛奎律髓》권47: 賈浪仙五言律詩高古, 平生用力之至者, 七言律詩不逮也.

40) <送道士>, <寄韓潮州>, <崔君夏林潭>, <送周元範歸越>, <早秋寄天竺靈隱二寺>, <贈岳人>, <贈元郎中>, <送崔秀才歸觀>, <愚性疎散常以弈棋釣魚爲事>, <臨晉縣西寺偶懷>.

41) 齊文榜, 《賈島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2001, 449쪽.

반대하다 멀리 廣東으로 내쳐졌다. 이에 가도가 그에게 위로의 시를 보낸 것이다. 함련의 '華山'과 '灑水'는 각각 가도가 있던 長安과 한유가 내려간 조주를 가리킨다. 한유의 글이 五嶺을 넘어 전해와 가도가 그에게 시를 보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주는 필경 지역만리 머나먼 곳이다. 서신을 전할 이가 지나갈 역참길엔 구름이 머물고, 바닷가 조주성엔 가을의 쓸쓸함이 감돌 뿐이다. 미련의 표현은 중의적이어서 상징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瘴氣'와 '안개'로 비유된 오해가 견고히 나면 그대가 있는 서쪽 누각에도 서광이 비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시는 突兀하면서도 형상성이 풍부해 '瘦'하다는 평어가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다.⁴²⁾

다음에 살펴볼 시는 《전당시》에 수록되지 않은 佚詩 가운데 하나인 <崔君夏林潭>이다.

新澤見底石和沙, 새 연못은 바닥의 돌과 모래도 보이고
 已有浮萍雜晚霞, 벌써 부평초 자라 저녁놀에 물든다.
 盤貯井冰蟬叫噪, 소반에 우물의 얼음 쌓아두니 매미가 소란하고
 手擎葵扇帽欹斜, 손에는 해바라기 부채 들고 모자 기울여 쓴다.
 洞深一徑堪行藥, 동굴 깊숙한 한 가닥 길에서는 行藥⁴³⁾을 할 만하고
 臺回千峰盡在家, 누대를 두른 천 개의 봉우리가 모두 집 안에 있도다.
 異卉奇芳無不種, 기이한 꽃과 풀 심지 않은 것이 없으니
 山中花少此中花, 산 속의 꽃도 이곳의 꽃보다 적으리라.

이 시는 崔君의 여름숲 연못을 소재로 한 것이다. 수련은 이 연못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평초가 자라 어엿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함련의 두 구는 모두 詩題의 '여름'을 부각시켜 피서지로 그만이라고 했다. 경련은 각각 '숲'과 '연못'을 형상화한 것이다. 숲이 우거진 모습을 '동굴'에 비유했고, 그곳에서 行藥을 하기에 좋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여러 시에서 흔히 볼 수

42) 孫琴安은 이 시를 가도 칠언율시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다.(孫琴安, 《唐七律詩正品》,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258쪽.)

43) 魏晉南北朝 시대의 士大夫들은 강렬한 약(五石散)을 먹고 養生하는 것을 즐겼는데, 약을 복용한 후 천천히 걸어 약성을 퍼뜨리는 것을 '行藥'이라 했다. 唐代에도 여전히 그 풍속이 남아 있었다.

있는 묘사인데, 경련의 對句에서는 기협과의 면목이 얼마간 드러난다. 연못을 정면으로 그려내는 대신 연못에 비친 봉우리로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여름의 더위를 날리는 시원스런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미련에서는 연못 주변에 화초를 심어 운치를 더한다고 칭송했다.

이 밖에 일시로는 <愚性疎散常以弈棋釣魚爲事>와 <臨晉縣西寺偶懷>가 더 있다. 가도의 칠언율시 중에서는 <早秋寄天竺靈隱二寺>가 가작으로 꼽히는데, 이 시 역시 《십초시》에 선록되어 있다. 따라서 가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표성을 가질 만한 시들을 잘 선별하여 수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십초시》 소재 중당 칠언율시의 특징

우리는 앞 절에서 《십초시》에 수록된 중당 네 시인의 시들을 간략하게 검토했다. 그런데 《십초시》의 선록 양상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첫째는 초성당의 칠언율시를 제쳐두고 중당의 것부터 선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만당으로 시대를 한정한다고 해도 이 시기 칠언율시의 대표적 시인인 李商隱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또 중당만 해도 다량의 칠언율시를 창작한 元稹이나 王建이 배제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문점들은 《십초시》 연구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므로, 본고의 제한된 지면에서 이를 모두 소상히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중당시의 선록 결과와 관련해 특정한 경향성이 관찰되거나 추론이 가능한 일부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4.1 《십초시》 편찬의 시대적 배경

《십초시》의 편찬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당시, 즉 고려 전

기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과거제도의 시행이다. 고려의 과거는 광종 9년(958) 五代 後周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광종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과거를 활용하고자 했다. 이렇게 마련된 과거제도는 지방의 한미한 가문의 문사들이 자신들의 문재를 발휘하여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⁴⁴⁾ 따라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출제과목이 지대한 관심사였는데, 과목으로는 詩, 賦, 頌, 時務策이 있었다. 이후 仁宗 때 과거제도가 완비되기까지 이들 과목의 내용에 얼마간 변화가 있었지만, 시, 부의 과목은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의 詩賦 창작의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작시의 방법을 배우는 교재로 흔히 개인의 문집이나 시선집이 쓰였으므로, 《십초시》 또한 이런 ‘學詩’의 기풍에 따라 참고서의 하나로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거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崔彥擣(868-944)⁴⁵⁾와 같은 신라 출신의 문신을 적극 포용하여 문치주의를 확립하고 당면한 여러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했다.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던 고려의 과거는 신라 출신의 문인들에게도 신분 제약에서 벗어나 능력과 포부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제도적 후원으로 崔知夢, 秦評, 崔凝 등의 문사들이 고려에서 그들의 文才를 드날릴 수 있었다.⁴⁶⁾ 문제는 이들이 당시의 文風을 주도하면서 고려 초의 문단이 자연스럽게 신라 말과 유사해졌다는 사실이다. 신라 말의 문풍은 결국 만당의 시와 변려문을 위주로 하는 것이었기에,⁴⁷⁾ 고려시대에 편찬된 《십초시》에 수록된 시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 중만당의 것으로 제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44)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258쪽: 고려시대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문사들 가운데는 서울의 기성관료보다는 군현의 夷族에서 진출한 신진사류가 많았다.

45) 신라 육두품 출신의 문인으로, 신라시대에 崔致遠, 崔承祐와 함께 ‘三崔’라 불리며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에 급제하여 돌아온 인물이다.

46)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85쪽.

47) 金澤榮, 《紹漢堂文集》권8, <雜言>: 三國高麗專學六朝文, 長於駢麗.

고려시대 문인들이 시를 배우고자 했던 것을 단순히 과거제도와 관련해서만 살필 것은 아니다. 당시 왕실을 위시한 귀족층에서는 시가 매우 중요한 교류 수단이었다. 예컨대 성종은 文臣月課法을 시행하여 관료들에게 매달 시 세 편과 부 한 편을 지어 바치게 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월과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문학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뒤이어 문종 때는 宴饗詩나 應制詩의 형태가 나타났다. 주로 節氣나 勝景을 노래하여 태평성대를 찬미하는 내용의 응제시는 칠언율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이 시들은 唐代 못지않게 수준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으며, 睿宗 때에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화답하여 지은 시들을 모은 《睿宗唱和集》이 편찬되기도 하였다.⁴⁹⁾ 시가 개인적인 사상과 감정을 토로하기보다 사회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를 社交詩라 부르고, 귀족 문인들은 이에 능숙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學詩'의 교재인 《십초시》에 수록된 중당 칠언율시가 대부분 사교시로 이루어진 것⁵⁰⁾은 일견 당연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4.2 시인과 시의 선정 기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십초시》에는 중당 시인 네 명의 칠언율시 40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시인과 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일까? 《십초시》편자의 서문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현재로서는 선정 결과만 가지고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먼저 선정된 시인 문제를 따져보자. 중당을 貞元 연간(785-804) 중심의 전

48) 이혜순, <고려전기 귀족문화와 漢詩>, 《韓國漢文學研究》 제15집, 한국한문학회, 1992, 58쪽.

49) 《東文選》卷102, 李奎報의 <睿宗唱和集跋尾> 참고.

50) 40수 가운데 사교시가 30수에 이른다. 이들은 寄贈詩 13수, 送別詩 7수, 唱和詩 5수, 기타 5수로 구별된다.

기와 元和 연간(806-820) 중심의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십초시》에 선정된 시인들은 모두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당 후기에 칠언율시를 열 수 이상 창작한 시인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이들이 바로 《십초시》의 편자가 선정의 후보로 삼았던 시인들일 터인데, 韓愈, 柳宗元, 劉禹錫, 張籍, 元稹, 白居易, 李紳, 鮑溶, 殷堯藩, 姚合, 王建 등 10여 명에 이른다. 여기서 《십초시》에 선정된 유우석, 백거이, 장적, 가도 네 사람의 칠언율시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할 만하다.

그래도 100수 가까운 칠언율시를 창작한 원진과 왕건이 제외된 것은 그 이유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본고의 시론적 접근은 《십초시》의 편찬과정에 羅唐 시인 간의 교류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선정된 네 명의 중당 시인 중 유우석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모두 신라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먼저 백거이는 신라와의 인연이 매우 깊은 인물이다.⁵¹⁾ 그의 시집은 당시 신라 문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해 신라 상인들이 浙東 지역에서 황금을 주고서라도 구했다는 ‘鷄林鸞詩’의 고사가 전해진다. 이밖에 장적은 신라의 사신을 전송한 시가 두 수나 있고⁵²⁾, 賈島는 신라인과 함께 쓴 聯句가 전해지고 있다.⁵³⁾ 《십초시》의 편자가 시의 선정을 위해 참고한 저본이 이와 같은 羅唐 시인 간의 교류 과정에서 획득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찰할 쟁점은 시의 선정 기준이다. 이 역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십초시》의 편자가 나름의 심미안을 바탕으로 가장 문학적 성취도가 높은 열 수를 선정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선정된 시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⁵⁴⁾ 예컨대 《십초시》에

51) 그는 校書郎으로 있을 때 金良忠과 金獻 등의 신라 사신들과 만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게 보내는 唐의 외교문서를 작성한 바 있다.

52) 《全唐詩》 권384, <送新羅使>: 萬里爲朝使, 離家今幾年. 應知舊行路, 卻上遠歸船. 夜泊避蛟窟, 朝炊求鳥泉. 悠悠到鄉國, 還望海西天. / 《全唐詩》 권385, <送金少卿副使歸新羅>: 雲鳥茫茫天畔微, 向東萬里一帆飛. 久爲侍子承恩重, 今佐使臣銜命歸. 通海便應將國信, 到家猶自著朝衣. 從前此去人無數, 光彩如君庭是稀.

53) <過海聯句>: 沙島浮還沒, 山雲斷復連. (高麗使) 棹穿波底月, 船壓水中天. (鳥) 여기서 ‘고려 사관 바로 신라의 사신을 가리킨다. (李嘉言, 《長江集新校》, 上海古籍出版社, 1983, 135쪽.)

선정된 유우석의 칠언율시 열 수는 모두 寶曆 원년(825)으로부터 大和 3년(829)까지의 5년 동안 창작된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창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칠언율시 가운데 <謝寺雙檜>만 하더라도 貞元 18년(802) 무렵으로 2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십초시》의 편자는 이렇게 수십 년에 달하는 시인의 창작역정을 감안하지 않고 어느 한 시기에 창작된 시만 뽑았던 것이다. 또 백거이의 칠언율시도 두 수를 제외한 여덟 수가 長慶 원년(821)부터 보력 2년(826)까지의 6년 동안 창작된 것으로 치우친다. 백거이의 칠언율시는 이 기간의 전후 20년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이 6년 동안에 나온 것만 우수하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찌된 일일까? 필자들은 이런 결과의 원인이 《십초시》의 편자가 참고한 자료가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금은 《전당시》와 같은 唐詩 總集이 갖추어져 있어 선집을 편찬하기가 용이하지만 당시의 사정은 이와 달랐을 것이 틀림없다.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들여왔다고 해도 간행된 것 모두를 구비하기는 어려웠을 터다. 따라서 《십초시》의 편자는 불가피하게 당장 가용한 자료에서만 시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유우석 시의 경우 백거이와 창화한 시를 묶은 《劉白唱和集》은 大和 6년(832)에 나왔다.⁵⁵⁾ 만약 《십초시》의 편자가 구비할 수 있었던 자료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이후 십 년간 창작된 유우석(842년 사망)의 시는 《십초시》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이다.

4.3 餘他 唐七律 選集과의 비교

《십초시》는 현전하는 최초의 唐七律選集이다. 이 책의 선시 기준을 간접

54) 널리 수작으로 인정되는 몇몇 시가 빠진 것은 관점의 차이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선정된 시의 창작 시점이 일정 기간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까지 그렇게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55) 王玫, 《劉禹錫白居易唱和詩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2, 6쪽.

적으로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여타의 당칠율선집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유력한 비교 대상이라면 중국 최초의 당칠율선집과 한국의 두 번째 당칠율선집이 될 터인데, 그것은 각각 《唐詩鼓吹》와 《唐律廣選》이다. 《십초시》와 이들의 선시 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십초시》의 선정기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唐詩鼓吹》는 元好問(1190-1257)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당칠율선집이다. 여기에는 중만당 시를 주축으로 96人 59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십초시》처럼 한 시인마다 열 수씩을 실어야 하는 제약이 없어 제법 많은 시인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중당 시인만 셈해 보면 32人 100수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십초시》에 이름이 오른 시인은 유우석(15수)과 가도(1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16수에서 《십초시》와 겹치는 시는 한 수도 없다. 《당시고취》에는 《십초시》에 선정되지 않은 중당 시인으로 柳宗元(10수)과 王建(5수)이 이름을 올렸다.⁵⁶⁾ 그러면 유우석을 예로 들어 두 선집에서의 선시 결과를 비교해보자.

《십초시》	《당시고취》
<春日書懷寄東洛白二十二楊八二庶子>	<西塞山懷古> <韓壽城春望>
<白舍人寄新詩有歎早白無兒因以贈之>	<荊門道懷古> <早春對雪奉寄澧州元郎中>
<上淮南令狐楚相公>	<松滋渡望峽中> <送源中丞充新羅冊立使>
<酬白樂天>	<洛中送楊處厚入關便遊蜀>
<王少尹宅宴張常侍...李員外二副使>	<送周使君罷渝州歸郢中別墅>
<和令狐相公題竹>	<送浙西李僕射相公赴鎮>
<關下待傳點呈諸同舍>	<送蕪州李郎中赴任>
<題集賢閣>	<贈日本僧智藏> <哭龐京兆>
<和令狐相公初歸京國賦詩言懷>	<哭呂衡州> <東岳張煉師>
<送令狐相公赴東都留守>	<送李庾先輩赴選>
10수	15수

56) 《당시고취》에 백거이의 시가 빠진 것이 특이한데, 원호문이 그의 시를 신지 않았던 이유는 선호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백거이가 '知足'과 '平靜'을 표방한 閑適詩가 원명 교체를 살아가던 원호문의 심정과는 거리가 있었고, 당시 백거이의 시집이 이미 광범위하게 유행되고 있어 굳이 선집에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張立榮, 《元好問〈唐詩鼓吹〉研究》,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32쪽).

유우석의 칠언율시에 본디 사교성의 제재가 많아 《십초시》나 《당시고취》 모두 사교시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당시고취》에는 회고시나 영회시 부류도 선정되어 있어 그 폭이 더 넓고, 사교시라 하더라도 《십초시》가 백거이와 영호초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저마다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십초시》에 선정된 유우석 시의 소재가 협소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십초시》의 편자가 선시의 자료로 삼은 서적이 《劉白唱和集》이나 《彭陽唱和集》⁵⁷⁾ 등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唐律廣選》은 李敏求(1589-1670)가 선집한 朝鮮 최초의 당칠율선집으로, 163인의 시 926수를 선록했다.⁵⁸⁾ 그가 서문에서 “초성당의 작품은 열 중에 아홉, 중당은 다섯 중에 셋, 만당은 셋 중의 하나를 남겨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만당의 시보다 초성당의 시를 더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선록된 시의 수량을 보면 성당 이전의 시는 39인 139수에 불과하고, 중만당의 시가 124인 667수로 월등히 많다.⁵⁹⁾ 이는 당대의 칠언율시가 중당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대량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률광선》에는 《십초시》에 수록된 네 명의 중당 시인 중에서 유우석을 제외한 백거이, 장적, 그리고 가도의 시가 각각 59수, 22수, 2수 실려 있다.⁶⁰⁾ 여기서 《십초시》에 선정된 시와 중복되는 것으로는 백거이의 <西省對花憶忠州東坡新花樹因寄題東樓>, <江樓晚眺寄水部張員外> 등 두 수⁶¹⁾, 장적의 <寒食內宴二首>其二⁶²⁾, <寄蘇州白使君>, <寄和州劉使君> 등 세 수, 가도의 <早秋寄題天竺靈隱寺> 한 수 등 여

57) 유우석과 영호초의 장화시를 모은 것으로 《新唐書·藝文志》에 서명만 전하고 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초시》의 편자는 편찬 당시 이 책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58) 허현주, 《동주 이민구의 당률광선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1쪽.

59)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1쪽.

60) 이민구는 당시를 초성중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면서 현대에 중당의 시인으로 보고 있는 이들 세 명의 시인을 모두 만당시기에 넣은 후, 백거이를 처음에, 장적을 세 번째, 가도를 여섯 번째에 배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唐律廣選》: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古朝45-나46])

61) 《十抄詩》에는 각각 <西省對花憶忠州東坡雜樹因寄題東樓>, <江樓晚眺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로 실려 있다.

62) 《十抄詩》에는 <寒食內宴詩二首>의 제목으로 총 두 수가 실려 있다.

섯 수가 있다.⁶³⁾ 이는 앞에서 살펴본 《당시고취》와 《십초시》 사이에 겹치는 것이 없었던 양상과 다르다. 그 까닭은 《당률광선》의 편자인 이민구가 당대의 칠언율시를 널리 뽑으면서 칠언율시가 가지는 ‘應酬’의 실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⁶⁴⁾

5. 結 論

《십초시》는 한중 양국을 통틀어 최초로 간행된 칠언율시 선집이다. 고려 초기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되어 당과 신라 시인의 일시 100여수를 보존하고 있다는 문헌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국의 당시를 수용하고 그것을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한 비평적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하는 귀중한 문헌이다. 본고는 서지학적 관점보다 문학비평적 관점에서 《십초시》에 접근해보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먼저 《십초시》에 실린 중당 칠언율시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선시 배경 등을 고찰하였다.

《십초시》에 선정된 중당 칠언율시는 劉禹錫, 白居易, 張籍, 그리고 賈島 네 시인의 40수이다. 칠언율시 발전사의 시각에서 볼 때 중당의 가장 큰 특징은 寄贈, 唱和, 送別이 주종을 이루는 社交 제재 일변도라고 할 수 있다. 《십초시》에 실린 칠언율시도 이런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30수 가량의 시가 사교 제재를 다루었다. 각 시인별로 선시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우석은 백거이와 舍狐楚와 주고받은 시에 한정되어 선정의 폭이 다소 협소해보였고, 백거이는 산수 제재 칠언율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 일반적인 대표작과 선정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또 장적에서는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반영한 시에 치우친 감이 있는 반면, 가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표성을

63) 《十抄詩》에는 <早秋寄天竺靈隱二寺>로 실려 있다.

64) 허현주, 앞 논문, 28쪽.

가질 만한 시들을 잘 선별했다고 판단된다.

《십초시》 편찬의 시대적 배경에는 고려의 과거제도 시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과거의 과목에 詩가 포함되면서 ‘學詩’의 기풍이 성했고,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참고서의 하나로 《십초시》가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당시의 과거제는 신라 출신의 문신을 적극 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신라 말의 文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만당의 시를 선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또 《십초시》에 선정된 중당 시인들의 면면을 볼 때 편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羅唐 시인 간의 교류 정도가 반영되었던 것 같다. 유우석은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세 사람은 신라 시인과 교류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러한 교분은 시인의 문집 등 《십초시》 편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정된 시의 창작 시점이 일정 기간으로 지나치게 물리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는 《십초시》의 편자가 참고한 자료가 다소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십초시》를 여타 당칠을 선집과 비교했을 때 元好問의 《唐詩鼓吹》와는 선시 결과가 판이했고, 李敏求의 《唐律廣選》과는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나당간 교류 정도가 반영된 사교시 위주의 선정이라는 《십초시》의 특징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된다.

< 參考文獻 >

- 《唐律廣選》，國立中央圖書館(古朝45-나46).
 《新刻蘇板古本句解唐詩鼓吹大全》，國立中央圖書館(古朝45-나28).
 方回, 《瀛奎律髓》，商務印書館, 1977.
 楊慎, 《升庵詩話》，宏業書局, 1972.
 金俊淵, 《당대 칠언율시 연구》，亦樂, 2004.
 金澤榮, 《韶漫堂文集》，《韓國文集叢刊》347, 민족문화추진회, 2005.
 閔丙秀, 《韓國漢詩史》，太學社, 1996.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林煥澤, 《夾注名賢十抄詩》, 韓國學中央研究院, 200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2.
- 聞一多, 《聞一多全集》, 湖北人民出版社, 1994.
- 查屏球, 《夾注名賢十抄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
- 謝思煒, 《白居易詩集校注》, 中華書局, 2006.
- 孫琴安, 《唐七律詩正品》,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 李嘉言, 《長江集新校》,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張立榮, 《元好問〈唐詩鼓吹〉研究》,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齊文榜, 《賈島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2001.
- 陳廣宏·鄭利華·歸青, 《中國詩學》第2卷, 東方出版中心, 1999.
- 陳才智, 《白居易》, 五洲傳播出版社, 2005.
- 陳增傑, 《唐人律詩箋注集評》, 浙江古籍出版社, 2003.
- 許 總, 《唐詩史》(下冊), 江西教育出版社, 1995.
- 姜哲中, <《十抄詩》의 中國詩 選詩 樣相 一考>, 《韓國漢詩研究》第11輯, 한국한시학회, 2003.
- 金乾坤, <高麗時代의 詩文選集>, 《정신문화연구》通卷6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 徐 盛, <晚唐 七言律詩와 新羅 漢詩>, 《中國語文論叢》제37집, 2008.
- 이혜순, <고려전기 귀족문화와 漢詩>, 《韓國漢文學研究》제15집, 한국한문학회, 1992.
- 扈承喜, <《十抄詩》一考 -《全唐詩》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書誌學報》第15號, 1995.
- 黃渭周, <朝鮮 前期의 漢詩選集>, 《정신문화연구》第20輯,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 金程宇, <《十抄詩》叢筭>, 《域外漢籍研究集刊》第1輯, 2005.05.
- _____, <韓國本《十抄詩》中的唐人佚詩輯考>, 《沈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2.05.
- 嚴 傑, <《十抄詩》中唐代佚詩錄文之辨誤>, 《古典文獻研究》第7輯, 2004.07.
- 牛林傑, <韓國文獻中的《全唐詩》逸詩考>, 《文史哲》, 山東大學出版社, 1998.05.
- 李文娟, <寒食清明節與唐朝文化>, 《安徽文學》, 2009年 第6期.
- 張 鵬, <《夾注名賢十抄詩》補正>, 《域外漢籍研究集刊》第4輯, 2008.05.
- 岡田千穗, <《十抄詩》及其注本的文獻價值>, 《域外漢籍研究集刊》第1輯, 2005.05.
- 芳村弘道 著, 沈慶昊 譯, <朝鮮本《夾注名賢十抄詩》의 基礎的 考察>, 《漢子漢文研究》創刊號,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
-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扈承喜, 《신라한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허현주, 《동주 이민구의 당률광선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王 玫, 《劉禹錫白居易唱和詩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2.
- 王婷婷, 《白居易近體詩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何 雲, 《論張籍的近體詩》,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中文提要 >

《十抄詩》是韓中兩國之間最初刊行的七律選集。這本書的收錄範圍，是從中唐到五代的26位詩人和新羅的4位詩人的七律，一共300首。《十抄詩》不僅有《全唐詩》中佚詩保存方面的文獻價值，而且作為高麗時代獨立編撰的最初的一種詩選集的价值也可貴。本文意在從文學批評的角度進行論述，所以先考察了《十抄詩》所收錄的中唐七律的內容以及其選錄的背景。

《十抄詩》所選的中唐七律有劉禹錫、白居易、張籍、賈島所作的40首。從七律發展史的角度來看，中唐最突出的特徵就是以寄贈、唱和、送別為主的社交題材的增加。《十抄詩》所收錄的七律也反映了這種現象，收錄了將近30首的社交詩。劉禹錫的詩大部分只限制於以白居易和令狐楚之間互贈的詩，而其選定的範圍比較狹窄。白居易的詩雖然有山水題材的七律的特徵，但不是能夠代表其創作水平的詩。張籍的詩偏向於反映日常生活的，而賈島的詩却是大部分有代表性的。

總之，高麗文人編撰《十抄詩》的目的顯得有三個具體的方向。第一，要符合高麗時代施行的科舉制度。因科目包括作詩在內，而學詩的文風盛行了，在這種情況下，《十抄詩》就作為一種“參考書”，為了滿足學詩的需要而出現。又因為施行的科舉制度的目的，在於積極地包容新羅出身的文人，所以自然愛好中晚唐的詩。第二，通過考察所收錄的中唐詩人及其詩的特徵，可以知道《十抄詩》編撰過程中的一些特點。這本選集不僅反映了羅唐詩人之間的交流程度，而且選定的創作期間較為偏向影響較大的唐代七律選集中，有元好問編的《唐詩鼓吹》和朝鮮李敏求編的《唐律廣選》。《十抄詩》與這些選集收錄的七律比較的結果表明，《十抄詩》是以社交詩為主編撰的特徵更為明顯的。

關鍵詞: 《十抄詩》、七言律詩、中唐、新羅、科擧制度、學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12.31	2011.2.10	2011.2.11	2011.2.15	2011.2.28